



본지 김한웅 부장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계육업계,
대의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 곡물가격이 연일 요동을 치면서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에틸 알코올이 자동차 대체에너지로 각광받으면서 시작된 옥수수가격의 폭등은 이미 오래 전이고 이제는 밀가격, 대두가격마저 20~30%씩 인상되면서 관련산업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우리 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배합사료가격이 또다시 들쭉이 있고, 이것이 닭고기 생산원가의 상승과 맞물려 가뜩이나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닭고기 가격형성에 걱정이 커지고 있는 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며칠 전 TV 뉴스에서 세계 곡물가격의 인상과 관련해 밀가루, 식용유를 비롯 제과·제빵 가격이 15%이상 추가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데 걱정이야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뭔가 허전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털어 낼 수가 없다.

똑같이 곡물가격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우리 업계는 닭고기 가격에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제분업계, 식용유업계, 제과·제빵 업계는 원자재 인상에 대한 것을 고스란히 판매제품가격에 연동시켜 최종 판매가를 인상하고 있는 것을 보니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로이지만 산물을 생산해서 생산원가에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하락과 상승요인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익이 전제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 가격결정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계산업의 현 체제로는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닭고기 업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닭고기 업계는 어떠한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닭고기를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량이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호불신의 굴곡이 너무 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사료원료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 육계산업에 대한 체질 재검토 논의가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가격결정구조 안에서는 더 이상 닭고기 산업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에서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톤당 옥수수가격이 163달러에서 238달러로 46%, 대두박가격은 248달러에서 352달러로 41.9%가 폭등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료곡물 수출국들이 자국내 축산물 소비량의 증가 이유 등으로 사료곡물의 수출을 감축하고 있다는 점도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곡물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타 축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육계산업으로서는 사료곡물의 가격폭등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 가격결정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계산업의 현 체제로는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닭고기 업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 조건은 있다. 아무리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도 내부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상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공염불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닭고기 업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게 된 데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감이 바닥에 깔려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닭고기 업계에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대의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 